가장 보통의 민주주의, 가장 보통의 대표

제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제9차 정기총회

일시 : 2024년 2월 17일(토) 오후2시

장소 :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

제주녹색당
Green Party Korea

차 례

진행 순서 ---------- 1

녹색당 평등문화 약속문 ---------- 2

녹색당 강령(전문) ---------- 3

안건 자료

[안건 1] 2023년 사업 및 결산보고 ---------- 4

감사보고서 승인 ---------- 27

[안건 2] 2024년 사업계획(안) ---------- 29

[안건 3] 2024년 예산(안) ---------- 33

[안건 4] 신임 임원 인준 ---------- 35

참고자료 1> 2023 제주녹색당이 잘한 일 ---------- 36

참고자료 2> 정책위 도민인터뷰 전문 ---------- 37

참고자료 3> 녹색당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 43

참고자료 4> 제주녹색당 권리당원 ---------- 49

진 행 순 서

시 간	내 용
13:30~14:00	총회 참석자 등록
14:00~14:05	공동 운영위원장 인사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14:05~14:10	평등문화약속문 낭독 의장 및 서기 임명
14:10~14:15	안건 확정 및 회순 통과
14:15~16:20	안건심의 및 의결
16:20~16:30	강령(전문)낭독 및 폐회 선언

녹색당 평등문화약속문

1. 우리 모두는 녹색당의 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2. 녹색당 당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3. 당내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처한다.
4. 당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고, 상호 동의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5. 나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관한 고정관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다.
7. 외모와 관련된 발언을 주의한다.
8.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하지 않으며, 혐오발언에 대해서 항의한다.
9. 연애와 결혼은 필수가 아님을 유의한다.
10.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있었을 시에 즉각 중단한다.
11. 녹색당의 당내 행사의 주관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경고하고 제지한다.
12. 녹색당의 당내 행사의 주관자는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녹 색 당

강령 – 전문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싹틔워 인류가 지구별의 뭇 생명들과 춤추고 노래하는 초록빛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도토리 하나가 만드는 떡갈나무 혁명이며, 여러 무늬와 색깔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지구별의 생명을 지키는 지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나침반이자 등대이며, 녹색전환의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함께, 공기의 순환이나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생명의 고동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공동체 돌봄과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 속에서 대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정당이며,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선 태양과 바람의 정당, 문명사적 전환을 만드는 녹색정당, 반정당의 정당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정치는 기성정당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넘어 생활정치·다양성 정치·녹색정치를 통해 소수자와 생명과 자연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낙관을 잃지 않으며, 비폭력과 평화의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녹색당과 함께 지구 곳곳에서 녹색전환을 실현할 것이며, 이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건 Ⅰ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평가안의 구성

1. 2024 총회 준비 경과보고
2. 2023 사업 평가
   1) 전체 사업목표 평가
   2) 조직위원회 평가
   3) 정책위원회 평가
   4) 주요사업 평가
      - 현안 대응(제2공항, 핵오염수투기), 당내 평등문화 확산, 청소년 정치학교
   5) 기타사업 평가
      - 들불축제 공론화, 비자림로 소송대응, 월정리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
3. 2023 일상활동 평가
4. 2023 결산

1. 2024 총회 준비 경과보고

날짜	내용
2022. 12. 9.	- 12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2024 총회 준비체계로 전환 - 12월12일 총회준비위원 모집공고 시작 - 총회준비위원 총 13명 구성(운영위원회 9인 + 총회준비위원 4인)
2023. 1. 4.	- 1차 총준위 회의 (민주노총 세미나실) : 총회 일정 확정 및 총회 준비를 위해 필요 사항 점검
2023. 1. 17.	- 2차 총준위 회의 (제주시 중앙로) : 2023년 2월 제8차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목표 사업 진행 및 성과 평가 : 2023년 결산보고
2023. 1. 26.	- 3차 총준위 회의 (줌) : 2023 사업계획 논의(조직위원회, 정책위원회, 일상사업, 전략사업 등)
2023. 2. 2.	- 정기총회 공지
2023. 2. 7.	- 4차 총준위 회의 (제주시 중앙로) : 사업평가 및 결산자료 최종 검토 :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최종 검토
2022. 2. 7. ~ 2. 16.	- 당원 문자 발송 및 연락(총회 참여 독려 및 위임요청)

2. 2023년 평가

1) 전체 사업목표 평가

[2023 제주녹색당 사업목표]

1. 제주녹색당의 신입당원들과 기존당원들이 제주녹색당의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재 500명이 안 되는 당원을 창당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시도한다.
3. 제2공항, 핵오염수투기 저지 등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2월 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정)
4.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의제들에 대한 정책을 정리하고 당원들과 충분히 소통한다.
5. 2024 총선 대비 선거제도 및 특별법 개혁을 위해 지역사회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제주의 총선전략을 세운다.

- 2023년은 녹색당의 정체성과 맞는 행사를 통해 당원들이 유입되는 사례가 많았다. 활동력을 가진 신입당원들이 자체사업이나 연대사업을 계기로 녹색당 활동을 시작하고 신입당원교육 등 당원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이 연결되며 '제주녹색당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꾸준한 소모임 운영을 통해 일반 당원들이 당 활동의 경험을 쌓아 갈 수 있었다.

- 3.8여성대회, 비자림로 소송대응, 세계녹색당총회, 제주생명평화대행진, 924 기후정의행진 등 다양한 의제별로 당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많았고 이를 통해 당원들 간의 결속을 이루었다. 당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임했다.

- 2023년 총회에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는 목표를 '제2공항, 핵오염수투기 저지 등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변경된 목표를 위해 제2공항 반대 거리캠페인을 통해 1,119명의 제2공항 반대 서명을 받아 제주도정에 제출하였고 핵오염수 투기 반대 정당연설회 조직, 지역과 연대한 집회 참가 등 많은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진행하였다. 또한 제주 들불축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면서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 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이 원탁토론을 통해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구체적 성과가 정당 효능감을 상승시켰고 2023년 사업 중 잘한 사업이라는 총준위 평가가 있었다. 따라서 2024년에도 녹색당이 녹색당의 정체성에 맞는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통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

- 2022년 지방선거 슬로건은 '기후위기 이제는 정치로'와 '관광객 줄이자'였고 특히 '관광객 줄이자'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로서 관심을 끌었다. 이후 선거용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녹색당의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총회에서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정리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계획되었던 상반기 정책세미나가 정책위원들의 불안정한 활동 등으로 꾸

준히 진행되지 못하며 깊이 있는 정책연구를 통한 정책생산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녹색당의 비전을 수립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2024년에는 지난 지방선거 후 진행했던 지역사회 오피니언들과의 인터뷰와 올해 정책위에서 진행했던 도민 인터뷰 자료 등을 정리해 '관광객 줄이자' 이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녹색당의 고민을 결과물로 만들어 소통하는 작업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선거제도 및 특별법 개혁을 이루기 위해 '정치개혁 제주행동' 활동(강연회, 워크숍, 회의)과 당내 노력(확대운영위 '선거제도' 안재홍 발제)을 지속하며 제안했으나 잘되지 않았다. 진보정당 연대 강화는 핵오염수 투기 저지 등 현안에 대해 꾸준히 공동 대응하며 소통을 이루었으나, 공통의 전략을 내지는 못했다.

2) 조직위원회 평가

[1] 사업계획

1) 사업 목표

- 신입당원들이 제주녹색당에 잘 정착하도록 미팅, 소모임, 교육 등을 지원한다.
- 당원들이 당정체성을 갖고, 혹은 취미 활동들을 통해서 만나서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당원의 날 행사를 기획한다.
- 당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기획을 사무처와 같이 세우고 실천한다.

2) 세부 계획

① 신입당원들이 제주녹색당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입당원들 미팅: 3월과 7~9월에 조직위원들이 조를 나눠서 지역별로 찾아가 식사 및 녹색당에 대한 안내 진행
- 신입당원 교육: 4월과 10월에 신입당원 교육 진행
- 각 소모임을 안내하고 참여 의사 있는 당원들 연결

② 당원들이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당원의 날 기획
- 3월: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걷기
- 3~5월 경: '수라'영화 관람
- 10월: 비건 음식 만들기 콘테스트
- 12월: 송년회
- 그 외 924기후행진, 퀴어퍼레이드 등에 당원의 날 행사로 참여

③ 당원 확대를 위한 기획
- 사무처와 공동으로 진행
- 퀴어퍼레이드, 지구의 날, 비건음식 페스티벌 등에서 녹색당 안내(팜플렛 배포 및 녹색당 이미지 기획), 연 6회 정도 진행
- 녹색당 행사에 친구 데려오기 캠페인

④ 소모임 안정화: 올빼미, 동카름, 비건반찬 만들기, 녹녹한 책읽기

[2] 사업성과

1) 회의진행

- 정책위원: 김순애(위원장), 김선, 양인숙, 최희정, 황용운, 오명환
- 조직위 회의 총 11회 진행
- 활동내용: 1/16 온라인 회의(6명)/ 2/20 온라인 회의(5명)/ 3/20 온라인 회의(6명)/ 4/22 회의(5명)-다소니/ 5/26 회의(5명)-월정리/ 7/1 회의(5명) 신입당원 교육 전 민주노총/ 8/2 회의(5명) 벤처마루회의실/ 9/8 회의(5명) 벤처마루 코워킹스페이스/ 10/6 회의(5명) 벤처마루 코워킹스페이스/ 11/15 회의(4명) 법원 근처 카페 (※ 12월은 12/22 송년회로 대체)

2) 사업계획 진행

① 신입당원 교육 및 지원

- 신입당원 교육1: 7월 1일 민주노총(신입당원 3명 참여)
- 신입당원 교육2: 12월 14일 온라인 진행(신입당원 4명 참여)
- 신입당원들과 미팅: 진행되지 않음
- 3월 경부터 신입당원 미팅을 진행하려 했지만 작년 9월 이후 입당 당원 중 반 이상이 육지 거주, 진명섭, 천새롬 당원은 순정님이 미팅 진행, 안석범, 박해숙 당원은 동카름 단톡방에 초대한 상태, 따라서 당분간은 미팅할 신입당원 수가 확보되지 않았기에 추후 신입당원 수가 확보되면 미팅 진행

② 당원의 날

- 3월: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걷기(3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걷는 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3.8여성대회 3.11 후쿠시마 12주기 등 지역에서 계획된 행사들이 많아 이 행사들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함)
- 3~5월 경: '수라'영화 관람 진행: 제주녹색당에서 수라 홍보 문구 작성 역할 담당
- 924기후정의행진(21명 참여, 비당원 육지 당원 4명 포함)
- 10월: 비건 음식 만들기 콘테스트(진행하지 못함)
- 12월: 송년회(26명 참여, 비당원 4명(아동 포함)

③ 당원 확대 기획 활동

- 3/5 진행된 3.8여성대회 행진과 3/11 진행된 핵오염수투기 반대 행진 전에 1시간 정도 시청에서 당원 모집 활동 진행
- 녹색당후드티 착용, 북극곰, 선거에 사용했던 녹색당 소개 대형포스터, 고래천 등 재활용
- 4/8 북페어 시민캠페인 진행(제2공항 반대서명 및 들불축제숙의형정책개발 청구인서명)
- 4/22 지구의날 시민캠페인 진행(제2공항반대서명 및 들불축제숙의형정책개발 청구인서명)
- 4/29 녹식당에서 당원 가입 테이블 세팅하고 당원가입서 받음
- 지난 녹식당에서 입당이 진행됐고 시청에서, 지구의 날 행사에서 입당 캠페인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음. 녹색당 중심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입당 권유가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추후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음
- 7/15 페미니즘 당원 교육 올빼미 중심으로 기획 진행(참여한 이들에게 입당 권유)

④ 소모임 지원 및 안정화

- 녹녹한 책읽기: 매월 1회 진행(총 12회 진행) 현재 단톡방에 11명 참여, 매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책모임에 5~7인 정도 참여/전년에 비해 1명 증가(재욱)
- 페미니즘 공부모임 올빼미: 매월 1회 진행(총 11회 진행) 참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모임에 6~7명 참여하여 연인원 75명
- 동카름: 매월 1회 진행(총 10회 진행), 성산 오조리 철새 탐방, 동백동산, 고사리 꺾기, 기후평화행진에 함께(덕천 위성센터), 금악리 농활,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 기후평화행진에 함께(성산읍 숨골), 아살람에서 함께 저녁식사, 녹색당 송년회에 함께/동카름 회원 매회 4~9인 참여, 동카름 아닌 분 참여 포함하면 연 85명
- 동물권 모임 조직에 대한 논의: 동물권 모임을 조직하려는 열정을 작게나마 가지고 있는 당원이 있으면 조직위에서 조력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러기 어려운 상황. 추후 동물권 의제에 관심이 있는 당원이 발견되면 동물권 모임 조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서은아 은영 선희 안석범 황용운) 단톡방 만들어 조직되어있으나 정기적인 오프 행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음

⑤ 정당연설회
- 7/27, 8/2 5시30분~6시30분 후쿠시마 핵오염수투기 반대 정당연설회 진행하기로 함
- 8/18 윤퇴진 집회 전에 정당연설회 진행
- 9/8 정당연설회(들불축제) 제주시청
- 10/6 정당연설회(들불축제, 핵오염수 투기) 제주시청
- 11/27 정당연설회(팔레스타인 사태) 제주시청

⑥ 청소년 정치학교
-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 청소년 정치학교를 조직위가 준비하길 제안
- 제청기행에 콜라보 제안(조직위+청소년정치학교 TF+제청기행이 준비팀)
- 1/6~1/7 제주청소년정치학교 진행

[3] 사업평가

- 월정리 싸움에 집중하면서 상반기 당원들을 만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함, 신입당원 미팅을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2024년에는 당원 미팅 필요
- 선거가 있었던 해에 비해 당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개별적인 조직 작업과 녹식당 등의 행사에서 당원 모집을 시도해 성과가 있었음
- 청소년 정치학교 TF에 합류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치학교가 진행되도록 기여하였음
- 기후정의행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제2공항, 들불축제 등의 사업이 녹색당에 요구되었고 조직위가 이에 상당 부분 결합하면서 애초 당원들과 편하게 함께하기 위한 당원의 날(걷기행사, 비건음식 만들기 컨테스트)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계획한 사업을 잘 진행함
- 올빼미, 동카름, 녹녹한 책읽기 등의 소모임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원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편하게 소통하면서 당원들이 화합하고 결속하는 기회가 되었음
- 동물권 모임이 만들어짐.
- 조직위 중심으로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는데 당의 주요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진행이 요구됨. 조직위 단독 진행이 어렵기에 2024년에는 당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
- 조직위가 꾸린 사업들은 어느 정도 수행이 되었지만 신입당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사무처와의 역할 배분을 통해 이뤄져야 함(환영인사, 손편지, 녹색당 반팔티 등의 굿즈)

- 조직위가 2023년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이후 활동을 이어갈 멤버가 없음.
- 조직위원 모집 공고 등을 통해 인원 확충 필요함

3) 정책위원회 평가

[1] 사업계획

1) 사업 목표

- 상반기 동안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현황을 파악한다.
- 공부/의제모임 2개 이상 조직해 정책 생산 단계까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 하반기에는 강연회, 정책발표회 등을 통해 당원들과 정책을 공유한다.

2) 세부 계획

① 공부모임/의제모임 2개 이상 조직

② 정책생산

- 제주의 환경수용력(쓰레기, 하수, 지하수, 해양, 도민 삶의 가치): 현황 분석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농업, 복지.돌봄): 현황 파악
- 정책 세미나 4회, 토론회 1회, 대중강연회 1회

③ 녹색당이 대중운동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통해 연구하고 발표회 등을 통해 당원들과 공유한다.

④ 2024 총선과 연계하여 공약 분석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2] 사업성과

1) 회의진행

- 정책위원: 이선자(정책위원장), 김상애(정책위원장), 김종욱, 부순정, 정재욱(10월-12월)
- 정책위 회의 총 12회 진행
- 활동내용: 1/14 회의(4명)-녹색페인트, 2/1 온라인 회의(4명), 2/25 회의(4명)-녹색페이트, 3/23 온라인 회의(4명), 6/18 회의(5명, 참관 1명)-월정리, 7/29 회의(2명, 부순정 휴가, 김종옥 쉼)-서브웨이, 8/11 회의(3명)-워크플랫폼, 9/5 회의(3명)-한라대 컨벤션, 9/20 회의(3명)-아라동, 10/15 회의(4명)-아살람, 10/19 회의(4명)-투썸, 1/15 온라인 회의(5명, ※12월 회의를 1월에 개최)

2) 사업진행

<u>① 제주의 환경수용력 현황 분석</u>

- 2월 내부 세미나 (2/25, 녹색페인트, 이선자, 김상애, 김종옥, 부순정)
  - 쓰레기 현황 공유(재생산업 일자리, 자원순환 대책, 리폼센터 등 논의)
  - 마을 자원과 공동체성을 기반으로한 대안경제로의 커먼즈 개념과 실제
  - 지하수 대수층의 의미, 곶자왈의 중요성.
- 3월 내부 세미나 (3/2, 온라인 회의, 이선자, 김상애, 김종옥, 부순정)

•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 삼다수 취수허가량 증가 문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에도 친환경이미지 선점, 제주개발공사 예산 들여다 보기
• 제주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방안 보고서 요약: 그린수소항만 구축안의 반환경성
• 섬의 시각으로 보는 관광: 공정여행, 관광의 시선, 배타성 타자화 등의 구체적 근거 찾기

② 대중강연회_한진오 작가 특강 '개발시대 1만8천 제주신들의 운명')
• 일시: 11월 18일 10:30~13:00 (실내 강연) '제주도 전통신앙의 참혹한 실상'
11월 19일 10:00~16:00 (현장 답사) '사라진 신성과 사위는 마을'
• 참여: 18일 25명(당원 17명, 비당원 8명), 19일 23명(당원 12명, 비당원 11명)
• 기획배경
기후변화가 가속화가 될수록, 관광 시장이 팽창될 수록, 제주도는 기상 이변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음. 제주도에 맞는 기후의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 정체성을 발견하고 당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특강을 기획함.
• 평가
제주의 민속 신앙, 풍습을 알게 되었고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민간신앙은 여전히 제주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 개발시대 1만8천 제주신들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의미, 환경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는 질문도 있었음. 그러나 현장 탐방을 통해 한진오 작가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게되었다는 평가가 많았음. 실내 특강만 신청을 했다가 현장 답사까지 함께 한 참가자들도 있었으며, 현장 답사 인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도가 높았던 특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추후 방향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과학기술들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제주의 과거 민속신앙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개체적 생명체들, 물, 바람, 흙, 나무, 바다, 숲은 인간과 유기적으로 살아가야 함. 원래 제주는 그러한 곳이었음. 제주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기후 운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후속 특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③ 제주녹색당 정책위원회 도민 인터뷰 (인터뷰 상세내용은 별첨- 참고자료2>

가. 1차 인터뷰_청소년
• 일시: 2023년 8월 11일
• 요약 및 시사점
- 일반학교 진학 청소년과 대안학교 진학 청소년에 따라 학교생활을 경험하는 방식이나 그에 대한 평가가 다름. 일반학교 학생의 경우, 학교 안과 밖의 생활에서 괴리가 큰 듯했고, 학업 중심의 생활패턴이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대안학교 학생의 경우, 사회참여 정도도 높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장려했고, 학생 역시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2021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청소년들의 실제 삶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보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함.

• 추후 방향
- 학생인권조례의 내실화 방안 고민 필요
- 사회참여 정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 대한 인식 조사 필요. 이 경우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

나. 2차 인터뷰_관광가이드
• 2023년 9월 5일
• 요약 및 시사점
제주의 근간 산업은 관광업임. 2020년 기준 제주도 GR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제주도는 코로나로 인해 특수를 누렸음. 현재는 관광객들이 줄고 있으나 아직 제주도는 과잉관광의 문제가 심함.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관광객 회복과 고품질 관광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결국 지난 도정이 답습했던 것처럼 관광산업을 위해 하드웨어적 개발과 토건 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면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과다 사용되는 에너지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 필요함. 무분별한 관광 및 렌터카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관광업이 더 이상 개발이 아닌 보존 패러다임으로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음.
• 추후 방향
- 작년 인터뷰에 이어서 관광업계 전문가 심층 인터뷰 필요
- 과잉관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해외사례 정리
- 제주도 과잉관광 관련 토론회 진행
-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과 관광에 의한 생활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 선거 의제 선점
- 도정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성명 발표

다. 3차 인터뷰_동물권
• 2023년 10월 19일
• 요약 및 시사점
동물권에 대한 접근은 중산간 들개 이슈나, 유해동물 지정 논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 중심의 사고에서 비인간존재에 대한 존중과 상생의 방법을 찾으려는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현재의 대응법을 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안락사보다 TNR(Trap-Neuter-Return포획-중성화수술-방사), 유해동물 사냥보다는 피해농가 지원이나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 같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
-개 식용 문제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도내에 현존하고 있는 개 농장 정리와 구조견 분양에 현실적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는 관광지의 특성, 번식견과 펫샵 문제 등도 교육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과 규제를 마련해야 함.
-기후위기와 더불어 채식에 관심도는 높아졌고, 채식급식조례도 제정되었지만 1회성 교육으로는 변화를 지속하기가 어렵고, 축산업은 도내에서 산업비중이 크고 이해관계도 많아 손쉽게 폐지를 논하기는 어려운 단계로 보이며, 동물복지 확대라도 촉구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추후 방향
-녹색당에서부터 비건과 동물권 존중을 기본값으로 하고, 동물권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보

다 세밀하게 정리(예/캣맘-길고양이-지역주민 갈등, 야생조류-길고양이 문제, 야생동물-농작물 피해 문제 등)
-관련 산업 이익을 우선시 하는 현 도정의 동물정책 방향성을 비판하고, 비인간생물을 존중하는 관점의 정책 설계
-지역먹거리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채식급식 확산(공공급식 등)과 실질적 변화 방안 모색

④ 정책위 논평발행
- 8/22 '청년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문제다 (신현정 당원)

[3] 사업평가

- 신규 위원 모집이 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원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기존 위원들의 탈퇴 및 휴식 등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멈추지 않았음. 정책위 회의 개최를 꾸준히 했고, 당내 토론회 등 운영위 행사에도 정책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음.
- 도민 인터뷰 및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지역당이 가져야 할 정체성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했고, 현장성 있는 연구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음. 지역당의 정책위원회로서 지역의 현안과 정책적 제안을 전국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월정리 투쟁 등 그때그때 발생하는 지역 현안, 위원회 역량 부족(그 전에 정책위원회 활동해 본 구성원이 거의 없고, 위원회 구성원도 적었음) 등의 이유로 2023년 초에 수립했던 정책위 사업 목표를 충실하게 따라가지는 못했음. 구성원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와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지역 현안 대응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정책을 개발한다는 위원회의 성격상 사업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1년이라는 단위는 너무 짧음. 장기적인 정책 개발 목표(ex. 다음 지방선거까지, 2030 로드맵 등)를 수립하고, 1년이라는 기간에 맞는 소박한 사업 목표 설정이 필요함.

4) 2023년 주요사업 평가

1. 제2공항 반대

[1] 사업 진행상황

① 제2공항백지화 시민캠페인 및 제주제2공항기본계획(안)에 대한 1,119명 반대의견서 제출
- 3/27(제주시청), 4/2(4.3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4/2(4.3전야제), 4/8(제주북페어), 4/22(지구의 날) 백지화 시민캠페인 및 반대 의견서 서명 받음
② 제2공항 관련 논평 4회 및 보도자료 3회 배포
- 1/6 [논평] 국토부는 제주도민 우롱말고 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 3/3 [논평] 환경부의 존재이유는 환경보전이다!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부동의 결정이 마땅하다.

- 3/30 [논평] 갈등만 증폭시키는 형식적인 제2공항 경청회를 중단하라!
- 4/7 [논평] 청소년은 제2공항 문제의 당사자이자, 동료시민이다!
- 3/27 [보도자료]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의견 수렴 제주녹색당 활동
- 4/19 [보도자료] 제주 제2공항 경청회에서 발생한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진정서 제출
- 5/30 [보도자료]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반대의견서 제출 (1,019명)

③ 도민경청회 참가 및 2차 경청회 인권침해 대응

- 경청회 참가: 3/29(성산), 4/6(서귀포시), 4/25 15:00 (한림), 5/13(제주시)
- 4/ 6 제2공항 2차 도민경청회에서 청소년 발언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
- 4/ 7 제주도 자치행정과 인권담당자,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담당자 면담
- 4/10 비상도민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대응방안 논의
- 4/19 [기자회견] 인권위 진정서 제출

※ 5/27(서귀포시), 5/28(제주시) 청소년 원탁회의 '제2공항, 청소년 빼고 뭐랭하맨?

④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연대

-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TF 활동: 5회 검증 브리핑 진행
- 주민투표촉구 기자회견 참여: 5회(3/2, 3/3, 3/22, 6/21, 7/28)
- 제2공항주민투표촉구 거리서명 및 제2공항 반대 집중선전전 참여: 10회(3/30, 4/6, 4/12, 4/19, 4/28, 7/28, 10/20, 11/3, 11/17, 12/1)
- 비상도민회의 회의 참여: 4회(3/20, 4/10, 5/8, 6/5)
- 도민대회 참여: 4회(4/15, 6/28, 7/25, 10/25)

⑤ 제주도청 앞 제2공항백지화 피케팅

- 11회 진행(1/9, 1/16, 1/30, 2/6, 2/13, 2/20, 2/27, 3/17, 3/23, 3/30, 4/13)

⑥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 활동

-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이들과 수차례 회의 및 1회 토론회 진행하여 조례 개정 초안 작성, 의원 발의 준비하고 있음

[2] 사업평가

- 지난 총회에서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비상도민회의와의 연대 사업을 넘어서 제주녹색당만의 투쟁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되어 5회의 제2공항 백지화 시민캠페인을 진행하고 1,119명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받아 제주도청에 제출하고 보도자료 배포하고 제2공항 관련 논평 배포 등의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음
- 비상도민회의가 주민투표 촉구 서명에 집중한 반면 제주녹색당은 반대의견서 조직에 집중하여 차별성 있는 성과를 언론에 보여줄 수 있었음
- 비상도민회의 차원에서도 주민투표 촉구 기자회견과 거리 서명, 선전전, 도민대회,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TF 활동 등을 진행하여 연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녹색당의 역량 차원에서 연대 활동에 참여하면서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리가 되었다고 판단함
- 제2공항 활동에서 연대에 집중할 것인지 독자적인 전략을 계획하고 진행할지 평가와 토론 필요

2. 핵오염수투기 대응

[1] 사업 진행상황

① 정당연설회와 논평 발행

- 정당연설회 진행 (7/12, 7/27, 8/18, 9/8, 10,6)
- 논평 발행

2/1 [논평] 해외과학자들도 지적한 일본 핵오염수 투기의 위험, 사후관리로 막을 수 없다
2/21 [논평] 다케다 가쯔토시 주제주일본국 총영사는 제주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3/17 [논평]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침묵한 굴욕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② 방송출연과 외부 기고

- 3/20 제주MBC라디오_라디오 제주시대_후쿠시마핵오염수에 대한 제주녹색당 입장
- 7/13 제주MBC_이슈잇다 '원전오염수, 제주의 대책은?'
- 8/20 플랜P '저항과 순응 그리고 회피,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대하는 자세'

③ 연대 활동

-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기자회견(3/3), 핵오염수 투기 반대행진(3/11), 국제토론회(5/8)
- 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야6당 공동대응(이하 '야6당 공동대응'으로 표기: 실무협의 및 대표자 간담회(4/10, 4/13, 5/2 등), 기자회견(4/10 도민카페, 5/15 대통령집무실), 공동 정당연설회 및 선전전(4/20 제주시청, 5/4 서귀포 오일장, 5/8 영사관), 5/25 야6당&제주도정 연석회의
- cptpp가입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 회의참여(2/6, 4/4, 4/13, 5/11, 6/2, 11/7), 집회참여(2/28, 6/13, 7/12, 8/29)

[2] 사업평가

- 지난 총회에서 토론을 통해 전략사업을 수정하였고 '제2공항, 핵오염수투기 저지 등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함
- 이에 따라 제주녹색당은 정당연설회와 논평발행 등 독자 활동 외에도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제주지역 야6당 공동대응, cptpp가입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활동에 다양하게 연대하며 최선을 다했음
- 핵오염수 관련해 지역 방송국뿐 아니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제주녹색당의 목소리를 알렸음
- 제주녹색당은 2022년 여름부터 일본영사관 앞 정당연설회를 시작으로 지역사회내에서 꾸준히 핵오염수 투기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으나, 2023년 8월 24일 1차 핵오염수 투기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

3. 당내 평등문화 확산

[1] 사업계획

1) 사업 목표
- 제주녹색당 내 지켜져야 할 평등문화에 대해 학습하고 평등문화 침해 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당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 계획
- 평등문화책임자와 그 역할에 대해 당원들에게 교육 및 공지를 통해 정확히 안내한다.
① 평등문화책임자 선정: 공동운영위원장 중 1인(부순정)
② 역할
 - 당내 행사에 있어서 평등문화 현장 책임 담당자를 지정하고, 고지
 - 평등문화 침해사건 발생 시 대응기구 구성 가능, 상벌위원회에 조사 요청 가능
 - 당내 평등문화의 정착 및 확산에 관한 당원 기본교육 실시
 -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와 실무자들에게 평등문화 실무교육 실시
③ 2023년 사업
 - 7월 중 당원 기본교육 & 선출직, 임명직 기본교육 실시(소모임 올빼미와 협업으로 진행)
 - 10월 중 장애 인권교육 + 평화교육

[2] 사업성과

1) [당원교육] 녹색정치를 위한 페미니즘 강연
  - 일시: 2023년 7월 15일, 오후 2시~6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
  - 내용: 강연1. 갈등과 적대 이후의 정치적 미래:녹색당의 페미니즘 정치 비평 (권김현영)
        강연2. 성소수자 혐오를 활용하는 정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채윤)
2) [당원교육] 기후재앙 시대의 기후약자
  - 일시: 2023년 10월 28일. 오후 2시 (제주참여환경연대 자람카페)
  - 내용: 기후재앙 시대의 기후약자 (김창대, 부순정 운영위원 발제)

[3] 사업평가

「녹색당 전당직자 성폭력보고서」 발행 이후 제주녹색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당원들에게 안내하고(2022년 11월 운영위), 녹색당 당규에 따라 공동운영위원장 중 1인(부순정 위원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였음(2022년 12월 운영위). 이에 따라 2023년 성평등문화와 관련한 당원 교육을 계획해 소모임 '올빼미' 주관으로 7월에 진행하였고, 장애인권 관련해서도 김창대, 부순정 운영위원 주관으로 10월 당원교육을 실시하였음.
페미니즘 강연의 경우 대중강연으로 진행해 당원 18명과 시민 6명, 총 24명이 참여하였고 지역에서도 전교조 여성위원회의 참여도 많았음. 섭외가 어렵고 접하기 어려운 강사들의 강연이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음. 장애인권 교육은 당원 7명이 참여해, 코로나와 산불, 홍수 등 기후재앙

을 마주하는 시대에도 기후위기 정책에서 '장애'라는 단어가 사라진 상황을 공유하고 타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았음. 이를 통해 '절벽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는 절박한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당원들과 함께 기후재앙 시대 기후약자를 위한 정책을 모색함. 앞으로 좀 더 많은 당원들이 의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가 있음.

4. 청소년 정치학교

[1] 사업계획

1) 사업목표
청소년들이 생태, 평등, 평화의 감각을 느끼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녹색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저변을 넓혀간다.
2) 세부계획
① 사업명: (가칭)오징어 학교 season 1
② 대상: 15세에서 20세 청소년 (10명 여명)
③ 일정: 2023년 여름
④ 내용: 4주차 커리큘럼 (평등문화약속문 만들기, 강연 및 토론, 생태탐방, 강연 및 토론)
⑤ 사업담당: 정치학교TF
3) '제주청소년 정치학교' 기획안 (수정안)
① 주제 키워드: 청소년 동료시민, 시민다움(시민성), 정치참여, 민주주의실험
② 목표
- 다양한 배경의 제주도 청소년 시민들이 모여 동료시민으로서 우정과 연대를 쌓아간다.
- 청소년 시민으로서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나누고 키워간다.
- 민주 시민으로서 소통, 협력, 다양성을 위한 자질을 키우며 청소년 또한 정치 참여의 한 주체로서 힘을 발휘한다.
③ 접근법
- 청소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프로그램인 만큼 정치의 주체로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강의 위주의 방식뿐만 아니라 서로 배움의 방식을 적절하게 배치했습니다.
-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서로 간의 차이를 탐색하고 인정하며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성과

- 청소년정치학교 TF+조직위+제청기행이 함께한 청소년정치학교 기획팀이 단톡방 개설
- 10/22, 11/12, 11/26, 12/10, 12/18, 12/29 총 6회 회의 진행
- 1/6 1강, 2강 / 1/7 3강, 4강 총 4강으로 진행
- 포스터 보고 신청 3명, 지인을 통한 소개 신청 2명, 제청기행 3~5명 (양일 모두 참여 7명)
- 단톡방 개설 및 후속 모임 진행 중

[3] 사업평가

1) 홍보 및 모집
- 포스터 효과가 예상외로 컸으며 지인들에게 홍보 시간은 다소 부족
- 청소년정치학교 내부 정보들이 청소년들의 커뮤니티에 전달되어야 함
- 안정감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내용을 잘 전달하여 마음에 와닿게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매력적인 내용과 디자인을 통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방안 필요
- 포스터 디자인이 청소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음
2) 목표와 준비, 실행과정
- 학교에서 오래 평화교육을 진행해온 분께서 기획단계에서부터 함께하여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었고 평화교육방법이 실제 사업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됨
- 지난 총회 때 '기후 위기 시대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저변을 넓혀간다'는 목표에 맞게 첫 시도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계획을 세웠으며 추후 세션이 더 보강된다면 기후위기 등 주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초반 기획팀 인원이 많아 의견이 모이기보다 흩어져 혼란스럽고 소모적인 측면이 있었음
- 일방적 전달이 아닌 서로 배움의 가치에 충실한 방식으로 진행함
- 사업에서 각 세션별로 제시된 청소년정치학교 목표들을 달성하기 적합하도록 설계되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들이 잘 달성되었음
-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색다른 이야기 방식 등을 알아보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었음.
- 대안학교와 공교육 청소년들이 함께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청소년들이 대화를 통해 공감과 힘을 얻을 수 있었음
- 청소년정치학교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음, 지속하면서 확장하고 심화시켜야 함

3) 차후 계획
- 2024년에는 1회의 포맷을 유지하며 다양한 수준으로 연대 방안 고민하여 실행

5) 기타 사업 평가

1.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청구

[1] 사업 취지

들불축제에 대한 제주녹색당의 논평(23.03.08.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들불축제 폐지하라) 발행 등 '2023 제주들불축제'를 앞두고 들불축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짐에도 제주시의 입장은 축제가 끝나고 4월 평가보고회 이후 친환경축제로의 전환을 모색해보겠다는 안일한 태도에 그쳤음. 이에 제주녹색당은 '들불축제 폐지를 공론화'를 결의하고(2023년 3월 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명을 모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들불축제 폐지를 위한 숙의형 정책 청구'를 결정하였음.

[2] 사업 진행상황

① 논평 및 보도자료
3 / 8 [논평]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들불축제를 폐지하라!
3 /28 [보도자료] 들불축제숙의형정책 청구서서명 시작
5 /18 [논평] 들불축제 공론화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라!
9 /15 [논평]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주민참여의 중요한 순간이다. 제주도의회는 적극 협조하라!
9 /21 [논평] 들불축제 원탁회의 참여단 구성은 틀렸다
9 /26 [논평]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행정의 면피용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
10/ 6 [보도자료] 제주녹색당, 들불축제 원탁회의 검증기구 요청 제안서 제주시장에 전달
② 정당연설회, 거리서명
- 거리서명 (3/27 제주시청, 4/2 전국노동자대회&4.3전야제, 4/8 제주북페어 등)
- 정당연설회 (9/9 제주시청, 10/6 제주시청)
③ 방송출연 및 기고
- 8/28 제주MBC 시가기획_이슈 잇다 '들불축제 운명은?' 23:20
- 10/20 [원고] 생태적지혜연구소, 프레시안, 제주투데이 공동 기고_'불 없는 들불축제'라고? 기후위기 역행하는 들불축제 폐지하라!
- 11/21 [원고] 참여환경연대_들불축제 원탁회의를 통해 확인한 제주 민주주의의 민낯
④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 기자회견(4/18 제주시청), 보도자료 배포(3/28, 4/17, 10/6)
⑤ 행정(제주시) 및 도의회 대응
- 6/5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서 제출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9/19 원탁회의 참여 (시민참여단, 청구인측 발표자)
- 9/27 들불축제 원탁회의 관련 제주시장 면담요청
- 10/5 이상봉 의원 면담 (10/6 정민구 의원 통화)
- 10/6 들불축제 원탁회의 관련 청구인 제안서(검증단 구성) 제출 (제주시장)
- 10/10 제주도의회 행정자차위원회 한권 의원 면담(도의회 전문위원 동석)

[2] 사업평가

-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통해 2018년 원희룡 전 도지시가 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를 거부한 이후 유명무실해졌던 숙의민주주의 조례의 취지를 되살림
- 3월 운영위원회에서 들불축제 폐지 공론화 결정 후 지속적인 기자회견, 논평발행, 서명운동, 정당연설회, 방송출연 등을 통해 반대 여론 확산에 기여함
- 원탁회의에 시민참여단에 참여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토론에 임하였음.
- 원탁회의 청구인측 발표(제주녹색당)와 토론(곶자왈사람들 김효철 대표)을 주도적으로 진행함
- 원탁회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시와 제주도의회를 접촉하며 담당자 면담, 의견서제출, 도의원 면담 등 지속적으로 대응하였음

- 9/19 원탁회의 당일 현장에서야 참여단 구성이 공정하지 못함을 파악하였고 이후 한권 도의원 등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도의회 내에서는 오히려 들불축제를 지속하려는 발언들이 이어지며 급기야 프로그램 기획 및 광고 등 관련 예산(2억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됨
- 10/11 제주시장은 2024 들불축제를 취소하고 '들불축제 시민기획단'을 구성하여 생태적 가치에 새로운 들불축제를 기획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참여자 미달로 당초 1/19까지였던 참여단 구성을 2/7 까지로 연장함
- 앞으로 들불축제 시민기획단 참여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2. 비자림로 소송 대응

[1] 사업 진행상황

① 소송 방청: 1/10, 4/11, 9/20, 11/15, 12/13
② 비자림로 소송기획단 구성: 당원 12명/ 비당원 5명으로 구성하여 총 15회 회의 진행
(05/01, 05/18, 06/01, 6/15, 6/30, 7/14, 7/28, 8/11, 8/22, 9/5, 9/18, 10/5, 10/16, 11/3, 11/15)
③ 비자림로 소송 관련 기자회견: 4/26, 12/13
④ 비자림로 시민 참여 활동 기획 및 실행
- 1/14 비자림로 시민 합창(비자림로 현장)
- 6월 비자림로를 살리는 만원 캠페인 전개: '숲이 다시 베어진다'
- 7월 '기후재난 증인을 찾습니다' 현수막 게시
- 8/1 탐라광장에서 비자림로 노래방 - 소송 기금 모금 행사 진행('탱크 × 비자림로')
- 8/27 '기후위기 피해자를 찾습니다' 시민참여 예술 프로젝트
- 8/27 비자림로 소송기금 마련 크라우드 펀딩 오픈
- 9/3 비자림로 동식물 이야기 온라인 세미나(18명 참여)
- 9/10 비자림로 동식물 이야기 현장 세미나(19명 참여)
- 10/21 '비자림로 모의 재판' 퍼포먼스(유진님): 소송기획단 포함 약 30여명 참여
- 11/10 '우리가 사랑하는 숲이에요' 공동체 상영회(30~40 명 참여)
⑤ 논평 발행: 4/13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제주의 대표적 반환경 공사다!'

[2] 사업평가

-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구성원으로 기획단을 꾸려 기자회견과 온오프라인 병행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재판과정을 꾸준히 방청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감.
- 소송기금마련을 위해 1만원모금, 노래방행사, 크라우드펀딩을 기획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음.
- 미술관 프로그램과 연계한 기후재난 증인 찾기와 모의재판을 통해 기후소송의 중요성과 원고적격문제를 부각시키고, 다큐멘터리 상영을 통해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킴.
-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공사과정과 공사후까지 약속한 저감대책등의 실행상황을 살피면서 현장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법을 강구해야함.

3.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1] 사업 진행상황

① 논평 발행
4/3 [논평] 법과 공권력을 앞세워 해녀들을 겁박하지 말고 해녀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6/19 [논평] 양적 성장 중심의 하수 정책은 미래를 위한 대안이 아니다!
8/4 [논평] 공권력을 앞세워 주민들을 강제 굴복시킨 오영훈 도지사는 화합을 논하지 말라!
1/31 [논평] 제주도는 위법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당장 멈추고 해녀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② 연대활동
- 4/ 4 월정리 현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구성 제안
- 4/ 5 [입장문 발표] 동부하수처리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제주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 4/ 7 [기자회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 및 제주하수정책 대안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도지사 면담요청서 전달, 도의원 면담)
- 4/19 [토론회] 제주동부하수처리장에 문화재가 있다고? 14:00 (도민카페)
- 5/ 2 [기자회견] 동부하수처리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1:00 (제주도청)
- 5/ 8~ 제주녹색당 월정리 컨테이너 일일지킴이 연대 결정
- 5/19 용천동굴지키기 범국민운동 선포 & 공사중단촉구 집회 (12:30 월정리, 17:00 제주도청)
- 5/26 [정당연설회]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앞 일반도로
- 5/30 본안소송(동부하수처리장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 6/ 2 제주용천동굴 현장시찰 및 기자회견
- 6/ 5 [기자회견] 동부하수처리장 문제해결 촉구 진보4당 공동 기자회견 (11시, 제주도청)

[2] 사업평가

-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현장은 2022지방선거에서 '관광객 줄이자'를 내세운 제주녹색당 입장에서 제주의 한계수용성을 드러내는 주요 현장임
- 또한 마을민주주의 문제가 드러나는 현장으로서 마을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은 해녀회 의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음
- 4/4 시민사회단체 대응기구가 구성되며 해녀들과 함께 싸우는 지역사회 운동으로 발전함
- 공동운영위원장들이 계속 회의체에 결합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당원들은 개별적으로 현장에 결합하기로 함 (2023년 6월 운영위 결정)
- 마을 내부의 복잡한 상황과 맞물리며 시민단체연석회의가 느슨해지고 활동력이 떨어짐
- 싸움의 중심이 월정리 주민들인 상황에서 녹색당이 대표성을 가지고 싸움의 성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도 제주녹색당의 목소리로 관광객줄이자, 하수정책전환 등의 메시지를 제주사회에 던지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하고 논평, 정당연설회, 기자회견, 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냄

3. 2023 일상 활동 정리 및 평가

1) 당원관리

① 제주녹색당 입.탈당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입당	8	52	38	88	32	84	50	37	18	64	27
탈당	0	0	0	11	18	24	20	50	34	18	22

② 2023 입당 이유 및 연령대 분석

입당 이유	인원수	연령대	인원수
지인권유	9	10대	0
우리 동네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9	20대	2
현수막, 홍보자료, 부스 등	6	30대	9
온라인 소셜활동을 보고	0	40대	7
언론을 보고	0	50대	4
해외녹색당 소식을 보고	0	60대	5
기타	3	70대	0
		80대	0
합계	**27**		**27**

③ 탈당 이유

활동정책 불만	개인사유	기타(경제적 /심적부담/사망 등)	타정당지지/가입	직장규정	합계
6	7	5	2	2	22

④ 당권자 분석

	남	여	미표기	합계
10대	1	0	0	1
20대	3	11	0	14
30대	16	32	2	50
40대	28	54	4	86
50대	40	44	0	84
60대	14	18	1	33
70대	3	2	0	5
80대	0	2	1	3
합계	**105**	**163**	**8**	**276**

⑤ 평가

입당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으나 녹색당의 정체성과 맞는 행사를 통해 당원들이 유입되는 사례가 많았음. 탈당자는 상반기 2월(5명), 3월(3명), 4월(3명) 등 연초에 탈당이 이어졌고, 9월 전국당 요청으로 장기 미납자에 대한 cms해지 안내 과정에서도 4명이 탈당함.

2) 당원 소모임 현황

모임	내용 (취지, 활동내용)
페미니즘 공부모임 올빼미	페미니즘 시각으로 세상읽기, 얘기나누기 - 매월 1회 온.오프로 진행 (총11회 진행) - 회당 6~7명 참여 (연 75명) - 12/7 페미올레 송년모임을 마지막으로 해산
녹녹한 책읽기	장르와 생각을 횡단하는 온라인 독서모임 - 매월 1회 온라인으로 진행(총 12회) - 매회 5~7명 참여(신규 회원 1명 증가)
동카름	제주 동쪽지역, 혹은 개발 갈등현장 방문 - 매월 1회 진행(총 10회 진행) - 매회 4~9명 참여 (비당원 포함 연 85명)
동물권모임	동물원 의제 모임을 위한 준비 - 현재 5명이 참여하는 단톡방 구성 - 정기적인 모임은 이루지 못함

※ 2022년 10월 구성된 비건반찬모임과 녹색탐험대는 운영되지 못함

② 평가

자생적으로 소모임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워 지속되지 못했음. 소모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주체가 필요함.

3) 연대활동

① 활동 내용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2/6 공안탄압저지대책위 회의 (19:00 줌) 2/10 시국강연회 '분단, 국가보안법과 인권'(19:00 농어업인회관) 5/2 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 6차 회의 19:00 (민주노총 제주본부) 9/11 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 8차 회의 18:30 (전여농 제주도연합) 9/13 박현우, 고창건 불구속재판 촉구 1인시위 11:30 (제주지방법원) 9/26 불법적 출석요구 강요미수 고발 및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_고창건, 박현우 석방 (제주지검)
3.8 여성대회 제주지역준비모임	• 2023 3.8 여성대회 준비회의 1/30(줌), 2/7(민주노총), 2/13(줌), 2/20(줌), 2/24(민주노총), 3/14(줌) • 2024 3.8 여성대회 사전 준비회의 12/11 (줌&민주노총), 12/22(줌)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8/2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 11:00 (관덕정) 8/11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1차 대표자회의 19:00 (민주노총)

제주행동(준)	8/18 12/15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1차 제주대회 19:00 (제주시청) 10/20 윤석열퇴진 노동자.농민전국대회_ 제주출발 11:00 (관덕정) 12/15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2차 제주대회 19:00 (제주시청)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 기자회견 3/2 기자회견_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11:00 (제주도청) 3/3 기자회견_제2공항 환경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 11:00 (도민카페) 3/22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11:00 (제주시청) 6/21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의혹해소 및 주민투표요구촉구 기자회견 11:00 (제주도청) 7/28 오영훈도지사 '주민투표 수용하지 않겠다'에 대한 기자회견 (제주도청) • 거리서명 (전체 일정 중 제주녹색당이 참여한 일정임) 3/30 제2공항주민투표촉구 거리서명 16:00 (신제주이마트) 4/6 제2공항주민투표촉구 거리서명 11:00-13:00 (한라대) 4/12 제2공항주민투표촉구 거리서명 11:00-13:00 (제주시오일장) 4/19 제2공항주민투표촉구 거리서명 11:00-13:00 (서귀포 오일장) 4/28 제2공항주민투표촉구 거리서명 16:00~18:00 (제주시청) • 피케팅 (전체 일정 중 제주녹색당이 참여한 일정임) 7/28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피케팅 7:30 (제주도청) 10/20 제2공항 집중선전전 16:00 (노형로터리) 11/3 제2공항 집중선전전 16:00 (제주시청) 11/17 제2공항 집중선전전 16:00 (구세무서) 12/1 제2공항 집중선전전 16:00 (노형로터리) • 도민대회 4/15 주민투표실시촉구 도민대회 19:00 (제주시청) 6/28 '제2공항 반대한다' 도민대회 19:00 (제주시청) 7/25 제2공항 주민투표촉구 도민대회 17:00 (제주도청) 10/25 제2공항반대 도민대회_기본계획고시 저지 19:00 (제주시청) • 비상도민회의 회의 3/20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전체 대표자회의 19:00 (환경운동연합) 4/10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15:00 (환경운동연합) 5/8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연석회의 17:00 (환경운동연합) 6/5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연석회의 17:00 (환경운동연합)
제주기후평화행진	1/29 제주기후평화행진_대정일대 2/18 제주기후평화행진_비자림로 3/4 제주기후평화행진_새별오름 4/9 제주기후평화행진_성산읍 5/14 제주기후평화행진_동백동산습지센터 6/25 제주기후평화행진 '하모리층과 사계해안사구' 10/15 제주기후평화행진_숨골.동굴.지하수 (혼인지) 11/23 제주기후평화행진 도민보고회 15:00 (도민카페)
정치개혁 제주행동	1/25 정치개혁제주행동 회의 15:00 (민주노총) 2/14 정치개혁제주행동 초청 워크샵 '선거제도개정안 해설' 19:00 (민주노총) 3/7 정치개혁제주행동 회의 19:00 (민주노총) 3/22 정치개혁제주행동 회의 19:00 (민주노총)
진보정당 연석회의	1/20 진보정당과 제주연구원 비공식 면담 (2시, 제주연구원) 10/26 진보정당 연석회의 16:00 (세월호 기억관) 11/22 제주지역 진보정당 연석회의 14:00 (정의당사)
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저지를 위한	• 실무회의 3/28(정의당사), 4/13(민주당사), 5/2(정의당사) • 기자회견&공동 대응

야6당 공동대응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민생당 제주도당	4/10 야6당 대표자 간담회 및 공동기자회견 08:30 (도민카페) 4/20 야6당 공동대응_정당연설회 11:00 (제주시청) 5/4 야6당 공동대응_정당연설회 11:00 (서귀포 오일장, 매일올레시장) 5/8 야6당 일본총리방한 대응_출근 선전전 08:00 (일본영사관) 5/15 야6당 공동대응_국회 기자회견 및 용산 대통령집무실 항의방문(13:40) 5/25 야6당 공동대응_제주도정 연석회의 14:00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
핵오염수방류 및 CPTPP저지 제주범도민대책위	• 회의 참석 2/6, 4/4, 4/13, 5/11, 6/2,11/7 • 집회 2/28 농어민생존권사수&일본방사능오염수방류반대 전국대회(11:00 제주도청) 6/13 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저지 제주범도민대회 14:00(노형) 7/12 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저지를 위한 2차 제주범도민대회 19:00(제주시청) 8/29 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저지를 위한 3차 제주범도민대회 16:00(노형)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 실행위 회의 1/18, 2/9, 4/13, 5/2, 5/18, 7/20, 8/31, 12/22 • 923제주기후정의행진 준비위 회의 9/11, 9/19, 10/10 • 기자회견&행진&토론회 3/ 3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3:00 (일본영사관) 3/11 후쿠시마12주기_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행진 15:00(제주시청) 5/ 8 후쿠시마핵오염수해양투기대응 국제토론회 14:00(제주도의회 소통마당) 6/20 [기자회견]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_2022년 에너지다소비건물 공개 10:30 (드림타워 앞) 9/23 제주기후정의행진 16:00 (제주시청)
기타	GMO반대 제주행동,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3 제주차별철폐대행진 공동기획단, 제주현장실습대책위, 여성가족부폐지저지 제주행동 등 (※ 2024년 제주퀴어퍼레이드 집행위원회 참여 예정)

② 평가

제2공항, 핵오염수투기저지, 기후평화행진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연대활동을 확장함. 제주의 많은 이슈들에 연대하는 것이 당력을 소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됨.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당내 상황에 대한 고려가 먼저 필요함

4) 논평 발간

① 활동

월	내용
1월	1/6 국토부는 제주도민 우롱말고 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2월	2/1 오영훈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초읽기에 돌입한 핵오염수 투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에 대해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한다 2/13 제주도는 허멩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추진을 중단하라! 2/21 다케다 가쯔토시 주제주일본국 총영사는 제주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3월	3/3 환경부의 존재이유는 환경보전이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하라! 3/8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들불축제를 폐지하라! 3/17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침묵한 굴욕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3/23 4·3 영령 통곡한다. 4·3 망언 처벌방안 마련하라! 3/31 갈등만 증폭시키는 형식적인 제2공항 경청회를 중단하라!
4월	4/3 법과 공권력을 앞세워 해녀들을 겁박하지 말고 해녀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4/7 청소년은 제2공항 문제의 당사자이자, 동료시민이다! 4/13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제주의 대표적 반환경 공사다! 4/24 서귀포 운수는 버스 준공영제가 실패임을 보여준다. 이제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5월	5/18 들불축제 공론화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라!
6월	6/19 양적 성장 중심의 하수 정책은 미래를 위한 대안이 아니다!
7월	7/7 15분 도시 외피를 쓴 토건 사업, 제주트램 도입은 틀렸다!
8월	8/4 공권력을 앞세워 주민들을 강제 굴복시킨 오영훈 도지사는 화합을 논하지 말라! 8/11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기후재난 시대에 역행한다! 8/22 '청년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문제다 8/30 제주시의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논의를 환영한다!
9월	9/15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주민참여의 중요한 순간이다. 제주도의회는 적극 협조하라! 9/18 억지로 만들어낸 트램 경제 타당성, 누가 책임질 것인가? 9/20 들불축제 원탁회의, 참여단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9/21 들불축제 원탁회의 참여단 구성은 틀렸다! 9/27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행정의 면피용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 제주시는 사과하고 권고안에 따라 들불축제 전면 재검토하라!
10월	-
11월	11/3 오영훈도지사는 부적절한 공직자 술자리에 대해 철저히 감찰하라!
12월	12/4 제주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몰고 갈 위성 생산 공장 신축을 불허하라!

구분	들불축제	교통	제2공항	핵오염수	월정리	비자림로	도의회	도정	4.3	평화	풍력	총
2023년	6	5	4	3	3	1	1	1	1	1	1	27

구분	제2공항	농업	교통	차별/인권/젠더	비자림로	난개발	도의회	도정	노동	평화	기타	총
2022년	1	3	3	4	2	5	3	3	1	1	4	30
2021년	8	1	3	3	3	5	3	0	1	1	3	31

② 평가

다양한 의제를 논평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모임 활성화 등 조직적 기반이 있어야 함. 앞으로 의제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주제별로 논평을 쓸 방안이 있을지 고민 필요. 당내에서 논평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논평쓰기 워크샵)을 계획해 볼 수 있음.

4. 2023년 제주녹색당 결산보고(안)

1) 개요

구분	내역	총계
수입	전기이월(2022년) 13,523,111 + 총수입 33,135,934	**46,659,045**
지출	총지출	**33,903,958**
차액	**(이월+수입) - 지출**	**12,755,087**

2) 수입

과목	연간누적	예산	집행률	상세내역
이월금	13,523,111	13,523,111	100.00%	전년도 이월금
정기당비	19,562,600	20,400,000	95.90%	약 1,700,000 * 12
특별당비				
후원금	13,454,059	6,900,000	194.99%	녹식당10,569,059, 귤1,115,000
기타 수입	119,275			예금이자 등
합계	46,659,045	40,823,111	114.30%	

3) 지출

과목		연간누적	예산	상세 내역	비율
인건비	인건비	13,900,000	14,400,000	사무처장 2주(7월) 무급휴가	97%
	퇴직적립금	996,000	996,000	83,000원 * 12개월	100%
소계		**14,896,000**	**15,396,000**		**97%**
사무소 설치·운영비	당사임대료 적립금	2,400,000	2,400,000	사무실마련기금적립 20만*12	100%
	공과금 및 유지비	436,840	600,000	전화,통신비 5만*12	73%
	물품 구입비	407,000	500,000		81%
소계		**3,243,840**	**3,500,000**		**93%**
정책개발비	정책위활동비	239,840	600,000	정책위원5인*1만*12	40%
	강연/토론회, 의제모임 지원	350,000	2,200,000	제2공항토론회 13만, 한화우주센터토론회 10만	16%
	연대 사업비	2,485,380	1,000,000	세계녹색당총회 100만	249%
	청년정치학교 지원	669,780	600,000	대관15, 강사22, 포스터5, 차량3, 교재63000, 식비156780	112%
	정당연설회, SNS,선전전	601,500	600,000	정당연설회, 서명, 선전전 등 10만*6회	100%
	홍보,편집비	1,200,000	1,200,000	10만*12	100%
소계		**5,546,500**	**6,200,000**		**89%**
조직활동비	조직위활동비	46,000	720,000	조직위원6인*1만*12	6%
	당원교육비	395,000	600,000	신입당원교육 115000, 당원기본교육 15만+13만	66%
	모임지원금	1,110,778	2,400,000	줌30만원/ 총준위,총회,송년모임	46%
	문자전송	184,800	500,000	전체문자 발송	37%
	운영위원장 활동비 (2인)	4,700,000	4,800,000	부순정 무급휴가2주	98%
	운영위 회의비	1,830,000	3,000,000	운영위원1인 사퇴, 김밥	61%
	여비	1,306,460	1,000,000	전국위 참여 등	131%
소계		**9,573,038**	**13,020,000**		**74%**
예비비		644,580	2,707,111	양희주·김예환결혼/ 김상애,조형곤, 유일석,송동효,엄문희 부의	**24%**
합계		**33,903,958**	**40,823,111**		**83%**

4) 기타

사무실 임대료 적립금	**2,421,851**	(원금2,400,000+이자21,851)
퇴직금 적립액	**1,345,454**	(원금1,332,000+이자13,454)

2023년 제주녹색당 사업 및 재정 감사

감 사 보 고 서

제주녹색당 귀중

1. 올해도 무탈하게 제주녹색당 정기총회가 개최됨을 축하드리며, 고맙습니다. 매해 선거를 치르며 지역당의 조직 활동, 모금 활동에 대한 많은 협력을 요청받고, 진행해야 했을 것을 고려한다면 지역당의 일상 사업까지 꾸준히 기획하고 시행하신 노력에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관련된 내용을 서술해보겠습니다.

1) 가장 먼저 지난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총회준비위원회에 기존 운영위원을 제외한 4인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라 평가합니다. 한편 지역당의 정책생산에 대한 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녹색당 전반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지역당의 평가와 필요성을 적극 공유하여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되었던 정책공약과 보완이 필요했던 정책공약들을 미리 검토하여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당과 전국당 간의 협업**이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2) 조직위원회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열려 '청소년 정치학교'라는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큰 결실로 보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뒷받침되는 다양한 기획 활동들과 소모임 지원 역시 제주녹색당의 활동 당원들이 적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유지되는 근거로 평가됩니다. **정치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줄어가며, 자발적 정당 참여에 대한 열의가 발생하기 어려운 시국**에 매월 책모임, 페미올레, 동카름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며 운영위원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 짐작해봅니다.

3) 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의 결과가 전국당, 주요 언론등을 통해 어떻게 더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당의 역할 중 하나는 좋은 시민정치교육 공간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제주녹색당의 정책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은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역민들과 더 다양한 시민들에게 좋은 정치교육, 환경교육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언론, 중앙언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신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책위원회의 사업이 위원들에게 과중했다면 2024년에는 이미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지역민들과 공유할 것인가, 제주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를 논의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4) 제주녹색당의 활성화된 연대사업, 현안대응 활동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수많은 현안에 둘러싸여 있을 당원들을 생각하면 참 여러 감정이 듭니다.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청구, 월정리 투쟁 등 제주녹색당만의 창의적인 정치투쟁의 다양한 결과들을 어떻게 제주녹색당의 정치활동 성과로 연결해 더 많고 다양한 제주의 인간, 비인간 시민들과 분명한 변화의 가치를 나눌 수 있을 것인지를 계획하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2026년 지방선거와도 연결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연대사업비는 넘치게 사용되었으나 강연/토론회/의제모임 예산이 다소 많이 절약된 이유에 대한 다른 측면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하며 언급한 것처럼, 제주녹색당의 정치활동이 제주도민들과 한국사회 시민들의 정치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되길 바라며 지역 교류사업 역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 총평입니다.

제주녹색당의 감사이면서 동시에 기초지역당 운영위원장을 하는 저로서, 제주녹색당의 활동과 보고 내용은 정당 교육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있을 만큼 주요한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제주녹색당의 감사로 활동을 살펴보고, 부족한 말을 전할 기회가 제게 생긴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 또한 제주녹색당의 활동이 더 많은 지역당과, 지역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16일

감사 김혜미 (인)

안건 2　　2024년 사업계획(안)

1. 2024 사업계획(안)

I 사업목표

1. 총선에서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으로 제주에서 선거활동을 진행하여 정의당제주도당과 연대의 경험을 쌓음과 동시에 제주에서 '녹색정의당'의 유의미한 정당 지지율을 획득한다.
2. 실질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는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담보되기에 기후정의 관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출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첫 단계로 2023년 녹색당과 이후연구소가 마련한 기후정의예산분석틀을 사용하여 제주도의 결산보고서와 예산보고서를 기후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약자와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3. 정기적으로 거리 정당연설회를 진행하여 시민들과 녹색당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의제 및 이슈에 대해 녹색당의 입장을 전달하여 녹색당의 존재를 각인시킨다.
4. 활동하지 않는 당원들과의 소통 방법 및 당원들이 녹색당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
5. 제주의 군사화를 교묘하게 은폐하는 한화우주센터 건립에 대해 제주녹색당의 대응 방안을 고민한다.
6. 1기 청소년정치학교 사업 성과를 이어받아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II 사업계획

1. 조직위원회 사업

1) 사업목표

- 운영위 교육과 당원 기본교육을 통하여 운영위원과 당원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 녹색당원들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소모임 조직 및 지원, 신입당원 만남, 제주녹색당원의 날 등을 운영한다.
- 제주녹색당원의 날 행사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실험해본다.
- 신입당원 교육을 통해 녹색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녹색당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활동이 중단되었던 서귀포지역 모임이 구성되도록 지원한다.

2) 사업계획

① 신입당원 교육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② 신입당원 입당

: 신입당원이 입당하면 사무처장이 연락해 환영인사 및 단톡방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이어 조직위에서 신입당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두 달 간격으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줌미팅을 진행한다. 신입당원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앞서 줌미팅에 함께했던 신입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③ 상반기 1회 당원의날, 하반기 송년회

④ 기존 소모임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신입당원들에게도 소모임을 안내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서귀포 모임 구성에 대한 고민도 지속)

⑤ 당원 기본교육: 하반기에 운영위와 함께 논의하여 주제 선정 및 진행

⑥ 운영위 교육: 총선 이후 운영위와 함께 논의하며 교육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진행

2. 정책위원회 사업

1) 사업 목표

- 지방선거 이후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장기 의제로 지속해온 것에 이어 2024년 지하수 관리 문제를 장기 의제로 선정하고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한다.
- 단기 의제는 교통과 장애 등 정책위원들의 역량과 관심을 반영해 선정한다.
- 의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역 현안에 관한 정책적 입장을 정리한다.
- 정책위 의제를 당원의무교육과 접목해 당원들의 정책적 이해를 돕는다.

2) 사업 계획

① 장기 의제: 지하수 관리

- 기사 정리, 자료수집, 정책 주 1회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유함.
- 지하수 정책보고회 1회 (5월~10월 활동 완료 후 보고회 진행)

② 단기 의제: 교통 등

- 논평, 교통담당 공무원 인터뷰
- 상, 하반기 3~4회 논평, 인터뷰 1회 (버스요금인상 관련 3월에 논평 예정)

③ 관광객 줄이자 (인터뷰)

- '소비증가에 따른 섬 수용력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장, 교통, 축산업, 재생에너지 관련 인터뷰 진행
- 상반기 1~2회, 하반기 2~3회

④ 정책위 의제를 '당원의무교육'과 접목할 수 있도록 제안함 (조직위+정책위 확대회의 통해 논의)

- 하반기(10월) 1회

⑤ 월 1회 모임 정례화 (넷째 주 토요일 6시)

⑥ 신규 정책위원 모집: 정책위 장기 및 단기 의제에 관심 있는 당원

3. 주요 사업

1) 2024 총선
- 녹색정의당 공동선본구성
- 당대표 지역순회 프로그램
- 비례선거운동 기간 현수막 게시, 트럭유세, 방송차량 운행 등의 선거운동 진행

2) 기후정의 관점에서 예산 분석
- 당원들과 비당원들과 함께 기후예산 분석팀 구성
- 기존에 나와 있는 기후정의예산 분석틀에 대한 교육 및 워크샵 진행
- 2024년은 첫 해인 만큼 예산서 보기, 기후정의 관점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에 대한 제주도의 기준 마련
- 이후 지속 사업으로 가져가서 매년 제주도의 예산과 결산과 분석하여 정리하고 발표하는 한편 제주도에 기후정의 관점에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압박 활동 전개
- 일정: 5월~6월 기후예산 분석팀 구성, 7월~8월 기후 정의 예산 분석틀에 대한 교육 및 워크샵, 9월~11월 제주도 예산 분석

3) 정당연설회 정례화 및 당원참여 확대
- 5월부터 월 1회, 목요일 6시
- 제주시 외 다른 지역에서의 정당연설회를 모색하고 그 지역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4) 당원들과의 소통 강화
-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5) 한화우주센터 건립 대응
- 졸속으로 추진되는 한화우주센터를 파헤치고 녹색당의 활동을 만들어간다.
- 2024 주요 사업으로 승인받고 숙의형정책청구 등 구체적 운동방법은 이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당원들과 소통하며 결정한다.

6) 청소년 정치학교
- 1기 청소년정치학교 사업 성과를 이어받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4. 기타 사업

1) 들불축제 후속작업
- ‘들불축제 시민참여기획단’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한다.

2) 제2공항
- 제2공항 관련 변동사항을 지켜보며 논평, 공항피케팅, 비상도민회의 연대 등 기존 활동을 이어가고 제2공 관련 당내 토론을 진행하여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3) 비자림로 공사
- 비자림로시민모임과 협력하여 도정이 약속한 부분들이 지켜지는지 공사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4)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
- 1심 승소 이후(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 선고) 상황을 지켜보며 이후 대응을 이어간다.
- 오영훈도지사 고발 기자회견: 2/16 (금) 11시, 제주지방검찰청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고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사전공사를 진행한 오영훈도지사를 고발합니다’

안건 3　　2024년 예산(안)

1. 수입

과목	예산	비율	
이월금	12,755,087	38.70%	전년도 이월금
정기당비	19,200,000	58.26%	약 1,600,000 * 12
특별당비		0.00%	
후원금	1,000,000	3.03%	귤 판매 예상 수익
기타수입			예금이자 등
합계	32,955,087	100%	

2. 지출

과목		예산금액	상세 내역	비율
인건비	인건비	14,400,000	120만원 (사무처장100,회계10,홈피10) * 12	
	퇴직적립금	996,000	83000 * 12	
소계		15,396,000		47%
사무소 설치·운영비	당사임대료 적립금	2,120,000	1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및 유지비	480,000	전화,통신비4만원*12	
	물품 구입비	500,000		
소계		3,100,000		9%
정책개발비	정책위활동비	500,000	정책위원5인*1만원*10	
	강연/토론회	800,000	강연/토론회 강사료 및 대관료, 식비 지원	
	연대 사업비	1,500,000	연대활동 분담금	
	청년정치학교	600,000	정치학교 기획, 운영	
	정당연설회, SNS,선전전	600,000	정당연설회,서명,선전전 등 10만원*6회	
	홍보,편집비	1,200,000	10만원*12	
소계		5,200,000		16%

조직활동비	조직위활동비	500,000	조직위원5인*1만원*10	
	당원교육비	400,000	신입당원교육2회*10만, 운영위원, 당원기본교육각 1회*10만	
	모임지원금	1,000,000	줌30만원/당원의날2회*15만원, 총회40만원	
	문자전송	300,000	전체문자 발송	
	운영위원장 활동비	2,400,000	1인*20만원*12	
	운영위 회의비	2,300,000	회의참석비 2만원, 식사비	
	여비	1,500,000	전국위 참여 등	
소계		**8,400,000**		25%
예비비		**859,087**	경조사비 / 기타	3%
합계		**32,955,087**		100%

안건 4　신임 임원 인준

2024 제주녹색당 임원

● **운영위원장**
김순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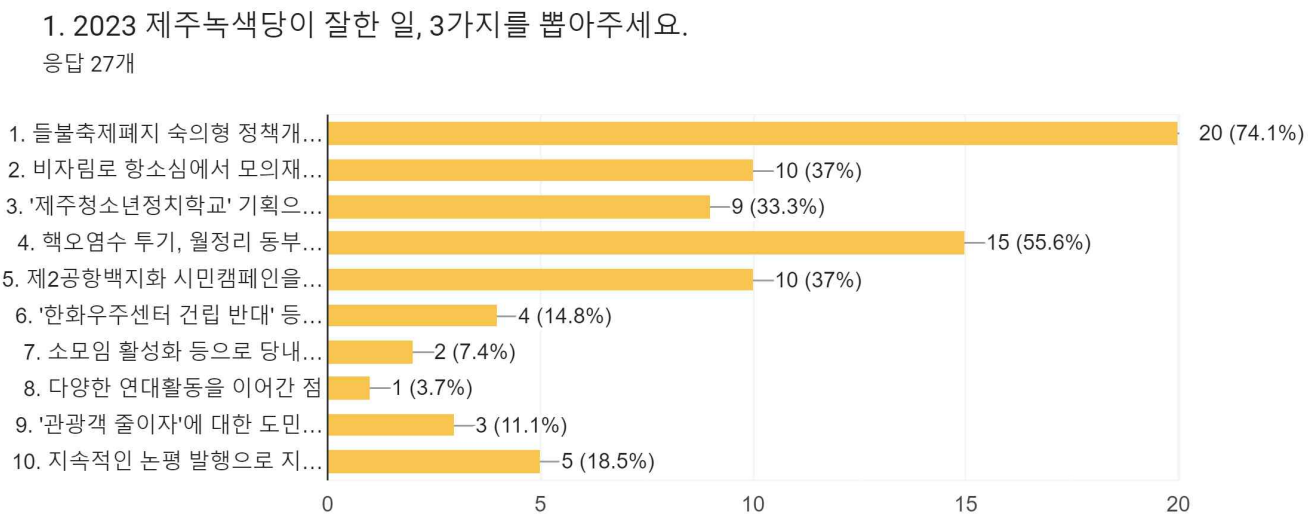
● **운영위원**
강민수 김종옥 김주영 김창대 부순정 신경준 양인숙 이성준

● **추첨직 운영위원**
최유리

※ 관련 규약

제 6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선출직 운영위원(10인 이내, 남성비율을 50% 미만으로 구성한다)
2. 사무처장 1인
3. 지역별 당원모임 대표 각 1인
4.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 각 1인(단, 의제별 당원모임은 운영위원회 참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5. 청년당원모임 대표 각 1인
6. 정책위원장
7. 조직위원장
8. 추첨직 운영위원(5인 이내, 세부안 별도 마련)

참고자료 1> 2023 제주녹색당이 잘한 일



2. 제주녹색당에 한 마디

- 녹색당은 인간의 권리를 넘어 자연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인권이나 노동인권 등, 인권 관련 이슈는 다른 정당에 맡겨두고 연대하면 될 것입니다. 녹색당은 생태환경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 이슈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그러지 못해온 녹색당을, 제 녹당이 앞장서 선도하기를 기대합니다.
- 올해도 환경관련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실무진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는 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 녹색당과 하는 일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녹색당 알리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 잘했어요!
-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세요! ^^
- 그리고 녹색당의 색깔을 잃으시면 안됩니다!
- 앞으로도 계속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 운동을 멈추는 일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 너무나 멋지십니다. 어떤 말로 형용이 불가할 정도로 옳지 못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서로 공유하며 채워나가시는 모습들이 제가 본 집단 중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으나,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녹색당 화이팅!!
- 최선을 다한 모두에게 참 잘하셨다고, 존경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제가 열심히 못해서 죄송할 뿐이에요.

참고자료 2> 정책위 인터뷰 전문

<제주녹색당 정책위원회 도민 인터뷰 1 – 청소년>

- 일시: 2023년 8월 11일
- 장소: 제주시 광양사거리 공유오피스
- 인터뷰 진행: 김상애, 이선자, 부순정
- 인터뷰 대상: 청소년A(제주녹색당원), 청소년B(비당원, 대안학교 학생)

1. 활동 소개
- 청소년A: 제주청소년기후행동
- 청소년B: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청소년모임, 제청기행 회원, 평화나비, 4·3 청소년 단체 준비중

2. 하루 일상은?
- 청소년A: 학교 다닐 때에는 기숙사 생활을 함.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공부, 저녁먹고 기숙사에 와서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취침.
- 청소년B: 학교 다닐 때에는 오전에는 철학, 오후에는 검정고시 준비. 그 외 시간에는 여러 가지 행사 준비.

3. 특별히 관심 가지는 사회문제, 이슈가 있다면?
- 청소년A: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 청소년B: 페미니즘, 성소수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4. 기후위기와 제주도 난개발에 대해 어느 정도 실감하고 있는지?
- 청소년A: 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지를 파고들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는 것 외에도 개발 행위 이후의 결과와 과정 속 비민주성을 내 문제로 생각하고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강정 등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학교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느끼는 것의 괴리가 크다. 학교에서 노동, 인권, 생태 교육 실시하지만 40분짜리 영상교육이라 학생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다. 한 선생님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영화 <수라>를 함께 관람하는 상영회를 서귀포에서 준비해보고 있다.
- 청소년B: 올 여름 더워졌다. OO동 개발의 가운데 학교가 있다.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

5. 제주녹색당 활동에 대해 평가하자면?
- 청소년A: 다른 정당과 다른 분위기. 다음이 기대된다.
- 청소년B: 기후위기와 여러 사회 활동에 참석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정당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과 같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정당들은 사회 활동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6.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뒤 달라진 점이 있는지?
- 청소년A: 만들어지고 친구들과 얘기해봤다.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은 10명 중 8명은 조례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토대나 절차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여전히 학생에게 폭언을 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인권조례가 실효성이 없고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다.

7.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 청소년A: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철학 수업하고,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부럽고 좋아보인다. 내가 다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카페인 음료로 새벽까지 버티며 공부하고 주말에 몰아서 잔다. 또래들과는 야한 농담을 하고 패드립을 해야 무리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 자퇴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 청소년B: 학생 주도로 하는 활동이 많아서 좋고, 진로 탐색을 함께 할 수 있다. 대학은 필요하다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가는 것 같다. 학교 다니는 게 힘든 건 아닌데, 학력 인정이 안 되는 학교라 대학을 가려면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치러야 한다. 대안학교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취급받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8. 사회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것과 활동의 의미?
- 청소년A: 녹색혁명을 일으키고 싶다. 알아버리고 나니 외면하기 힘들다. 동생들에게 좋은 삶과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
- 청소년B: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활동에서 맡고 있는 일이 보도자료 쓰기 등인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맞닥뜨리는 것이 힘들기도 하다. 행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면 반갑기도 한데, 학생들이 세뇌되었다거나 선동당했다는 말을 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이 빠진다.

9. 제주에서 계속 살고 싶은가?
- 청소년A: 친구들이 제주에 계속 살 것인지 많이 물어본다.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하다. 당연히 서울로 가는 게 성공이라는 생각이 만연하다. 제2공항 토론회를 홍보할 때에도 친구들로부터 제주에 안 살 것이니 관심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 청소년B: 서울에서의 문화 생활을 부럽다고 느낀 적은 있지만, 가서 살고 싶지는 않다. 서울로 모든 사람들이 가버리면, 제주의 문제는 누가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10. 제주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는지?
- 청소년A: 대중교통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자전거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 차가 없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 청소년B: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데 비용이 더 든다. 배송비 문제는 해결됐으면 좋겠다.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다.

<제주녹색당 정책위원회 도민 인터뷰 2 – 관광업계종사자>

- 일시: 2023년 9월 5일
- 장소: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 1층
- 인터뷰 진행: 김상애, 이선자, 부순정
- 인터뷰 대상: C

1. 제주에 대한 생각

- 원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제주 원주민이고 조상 대대로 살다 보니 어느새 관심이 생겼다. 손님을 모시고 드라이브 가이드를 하다보니 제주에 대해 자랑하고 싶고 좋은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주를 뺏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제주가 내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뺏기고 있다는 느낌. 한 번은 어떤 손님들이 시내권에서 움직일 때, “우리동네 같다”고 말한 것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았다. 제주만의 매력이 없고 육지 도시랑 똑같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가면 관광객이 많이 안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연은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자기소개

- 지하상가 옷가게 장사를 12년 했고, 지금은 드라이브 가이드[1]를 하고 있다. 관광 가이드를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였다. 처음에는 스타렉스로 골프장 직원들 셔틀부터 골프투어 관광을 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달만에 골프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일자리가 끊겼다. 그런데 이미 새 차를 뽑은 상태라 뭐라도 하려고 관광을 시작했다. 일은 여행사에서 중개해서 하고 있다. 관광 일을 하면서 제주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진 것 같다.

3. 관광산업에 대한 견해

- 제주는 관광산업이 가장 크다. 이게 오래 유지되려면 제주만의 매력을 잘 지켜가야 한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함부로 신축을 못하게 규제를 하거나, 오래된 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부럽다.
- 온라인 여행사는 말도 안 되는 낮은 가격으로 모객하고 패키지 옵션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하면 여행의 질이 떨어지고, 가이드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 드라이브 가이드는 완전히 합법화된 방식의 사업이 아니다. 제주에서 일정 자격 기준을 만들어서 틈새의 관광수요를 합법적으로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수준은 보험에서 유상운송특약 가입 정도로만 법적 장치가 보장되고 있다.
- 올해 일이 많이 없어서 편의점 알바를 병행하고 있다. 제주의 ‘바가지’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사람들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니 외국에 더 많이 간다. 제주의 매력이 없어져서 손님들이 빠져나간 탓이 크다.
- 제주에 관광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주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렌트카를 줄여야 한다. 싱가폴은 유명 관광지이지만 규칙, 규제가 세기로 유명하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길게 봐야 한다. 관광객 수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

1) 기존에 대형 버스와 함께 제주를 안내하는 가이드와는 달리 개별 가이드가 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소규모로 가이드를 하는 것.

하다. 제주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 관광을 핑계로 건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많이 훼손되었다. 미분양 주택도 많은데 계속 짓고 있다.

- 젊은 사람들에게 관광업 상당히 권할 만하지만,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어설프게 관광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제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제주를 사랑하는 모습을 제주에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게끔 하려면 관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단소과 규제도 세게 해야 한다.
- 단체 관광보다는 10명 이내의 관광이 질도 높고 훼손도 덜 된다. 대량 관광, 렌터카 관광이 줄어들고 소규모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이 편리하고 접근성 좋게 잘 될 필요가 있다.

<제주녹색당 정책위원회 도민 인터뷰 3 – 동물권/비건 활동가>

- 일시: 2023년 10월 19일
- 장소: 제주대병원 앞 까페
- 인터뷰 진행: 김상애, 이선자, 부순정, 김종옥
- 인터뷰 대상: D

1. 중산간 들개 이슈에 관한 의견

들개는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이다. 실제 들개와는 다르고 버려진 유기견 또는 중산간마을에서 키우다 분리된 반려견들이 몰려다니며 2-3세대를 거치고 야생성과 공격성이 강해진 것으로 본다. 실제 피해보는 시민들이 있고, 소수의 가축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이다. 중산간유기견은 현재 죽이기 정책밖에 없다. 해외는 안락사를 대안으로 하는 정책은 사라지고 있고, 개도 TNR(Trap-Neuter-Return포획-중성화수술-방사)해서 마을 단위에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중산간 유기견들을 포용했을 때, 줄어들 수 있다. 도내에서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가는 개가 연간 4,000마리 후반~5500마리 정도되는데, 입양되는 숫자는 10% 이내에 불과하고 또 버려지거나 안락사되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과 친구하기> 프로그램을 해보니 시민들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 시민들이 입양 시스템을 몰라서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마라도 고양이나 구출견 적극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 보려고 한다.

동물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만 하려고 한다. 죽이는 것은 이제 그만.

2. 유해동물 지정여부 상관없이,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동물들(노루, 까치, 까마귀...) 문제

유해라는 말 자체가 불쾌하다. 인간 중심 사회에서 재산에 조금의 피해만 있어도 민원을 제기하고 제제를 요구한다. 사회에서 존중받을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도구로 여겨진다. 동물을 위한 정책은 없고 동물을 객체화하는 인간 중심 사고 이 자체가 문제이다. 관점이 전환 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역으로 강화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으로 평화가 오는데, 역으로 간다.

유해동물에 대해 동물단체도 별로 얘기를 안 한다. 잘못 되었다는 건 알지만, 이걸 얘기했을 때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대안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있다.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이후에 답을 못 하고 있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참가자 발언/ 노루는 유해동물로 지정되었다가 중단되었다. 노루 막는 펜스를 지원하는 소극적 정

책이 있긴 하다.)
노루, 서식처 파괴로 내려오는 건데, 고려하지 않는다.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방법도 있다.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권한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3. 개 식용 현행법 어떻게 되어 있고, 현행과 진행과정
개는 가축에 들어가지만 식품위생법 점검 대상에 개가 없다. 농장을 해서 개는 키울 수 있지만 식품이 될 수 없고, 도축장도 없다. 업태로 신고할 수 없다. 정해진 도축장에서 도축해서 식품이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식품이 될 수 없다. 현재는 불법을 방치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작년에 제주에서 이슈화하면서 실태조사를 했다. 건축법상으로 100마리이상 이라 등록된 개농장만 40여 곳이다. 2019년 카라에서 조사할 때 81개였는데, 실태 파악이 다 안 되기도 하고, 숫자가 적어지면서 대규모화 된 면도 있다. 20마리 정도인 소규모 개 농장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규모가 커지면 이후 수습과정도 어렵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장이 다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다. <개식용종식을 위한 제주시민연대>를 꾸리고 사례들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사유재산문제와 충돌하는 면도 있지만, 개 농장을 보호소로 전환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는 개 식용 문제의 특수성이 있다. 육지부의 단속이 심해지니 육지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개농장을 운영하고 제주에서 키워 육지로 올려보낸다. 원희룡이 허가를 내 줘 버렸다. 육지로 올려보내는 문제를 도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 같다.

4. 유기견 문제와 반려동물 보호/관리 정책
인구대비 유기견 숫자가 많은 곳이 제주이다. 여행 와서 버리고 가는 것이다. 항공이나 여객에서 협조를 안 해서 조사를 못 하고 있다고 도정에서는 안이하게 얘기한다.
게다가 정책적 목표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 2022 지선 때 <유기동물 없는 제주>라는 정책 키워드를 제안했는데, <반려동물 육성> 같은 문구로 정책자료집에 실렸다. 반려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 배치가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업체의 민원이나 반려동물산업활성화로 흘러가는 식이다.

제주에서도 <동물보호조례>를 만드는 것을 변호사와 함께 내용 검토 중이다. 진보적이지도 않고 서울이나 경기도 조례의 내용 정도를 기본으로 이 정도는 보호/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려고 한다.
캣맘과 주민의 갈등을 본 적이 있다. 캣맘, 동물을 싫어하는 주민, 길고양이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밥을 주려면 중성화를 해야 한다. 피해는 고양이가 본다. 중성화한 고양이에 한해 밥을 주는 것이 고양이를 관리하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밥만 주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고양이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공동체를 함께 봐야한다. 2마리 밥 주다가 몇 년 사이에 50마리 된 경우도 봤다.
(참가자 발언/동물보호에도 권리와 책임의 공존이 필요하겠다)

5. 동물사랑교육, 교육효과나 실효성은?
어릴 때부터 동물에 대한 인식을 잘 갖자는 취지이다. 몰라서 저지르는 학대도 있다. 동물들에 대해 알려주고,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한다. 반려동물, 유기동물, 생명존중(비건, 돌고래 보

호) 카테고리로 교육을 한다. 아이들이 먹을거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니, 동물복지라도 선택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법을 연결해서 얘기한다. 동물사랑교육 3년차인데 채식 강의 2022년에 3000명, 2023년에 6000명을 만났다. 학부모, 교직원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6. 제주 채식 급식 조례 포함해서 채식 제주 상황은?
채식조례추진위원회에서 <채식하기 좋은 제주 조례>초안을 발표한 이후 2022년 3월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지만, 교육 현장이 즉각적으로 변하지는 않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평생 입맛이 결정되므로, 초등 이전의 교육이 중요하다. 기후위기가 급박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심이 증가한 면이 있고, 친환경급식도 기후급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채식을 기본값으로 하고 육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을 하고 나면 잔반이 줄어들지만 1회성 교육의 한계가 있고, 부모교육이 동반되지 않는 한 집에가면 못 하고 교육 효과 유지가 어려운 면이 있다.
(참가자 발언/비건이나 채식에 대한 얘기가 동물권 중심으로 되다가, 기후위기와 맞물려 설득력을 더 갖게 된 것 같다.)

7. 그 밖에
-축산업은 이해관계가 너무 큰 산업이라 건드리기 쉽지 않다. 시민단체들이 양돈협회 같은 곳의 지원을 받지 않고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참가자 발언/양돈은 250여 농가에 불과하지만, 관련 산업 종사자 수도 많고, 축산업 조수입이 1조가 넘는다)
-현 제주도의회는 관심있는 의원이 없고, 철학이나 방향도 부재하다. 제주에서 동물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동물들을 구조하고 돌보느라 정책이나 운동할 여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

-녹색당에서 동물권과 비건을 기본 툴로 잡고,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가는 실험의 장이 되면 좋겠다. 녹색당이 정치적으로도 사회의식 변화를 위해서도 할 일이 많다.

참고자료 3> 녹색당제주도당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녹색당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제주녹색당)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원칙)

① 제주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

② 제주녹색당은 녹색당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별 당원모임과 생명·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제별당원모임,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제주녹색당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2001년 채택된 세계녹색당헌장과 녹색당 강령과 규약, 창립 선언문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조직

제 3조(당원)

① 제주녹색당 당원은 녹색당 강령과 당헌에 동의하여 입당원서를 내고 가입한 사람 중 당원명부가 제주도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주녹색당 당원의 입당과 탈당 및 권리와 의무는 녹색당 당헌과 당규에 따른다.

제 4조(당원총회의 권한)

① 당원총회는 제주녹색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주녹색당의 해산 등 당의 주요 결정사항
2. 제주녹색당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
3. 10인 이내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해임
4. 2인 이내 감사의 선출·해임
5. 연간 사업 및 예산과 결산의 보고
6. 연간 예산결산안의 의결
7. 연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8. 감사보고서 심의·의결
9.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10. 기타 중요한 결정

제 5조(당원총회의 소집과 위임)

① 당원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4분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 당원1/10 이상의 요청으로 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동운영위원장이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재적 당원의 1/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당원총투표는 당원총회에 준한다

③ 당원총회는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하며, 당원은 당원총회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의 절차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선출직 운영위원(10인 이내, 남성비율을 50% 미만으로 구성한다)
2. 사무처장 1인
3. 지역별 당원모임 대표 각 1인
4.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 각 1인(단, 의제별 당원모임은 운영위원회 참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5. 청년당원모임 대표 각 1인
6. 정책위원장
7. 조직위원장
8. 추첨직 운영위원(5인 이내, 세부안 별도 마련)

제 7조 (공동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제주 녹색당을 대표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은 2인 이내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남성비율을 50%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동운영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 단, 공동운영위원장 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8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당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 규약의 세부 시행과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4.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인준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5.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및 전국위원회 의결 사항의 집행
6. 의제모임과 지역모임의 승인
7. 당원소모임 지원에 대한 의결
8. 당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창당 준비에 필요한 사항

제 9조 (운영위원의 의무)
① 운영위원은 조직위원회가 정한 운영위원 필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 1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운영위원 1/3이상 요구 시 10일 이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개최 시는 육아활동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총회 준비를 위해 총회준비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다.

제 11조 (운영위원회의 참관)
제주녹색당 당원은 운영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관인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 12조(지역별 당원모임)
① 지역별 당원모임은 3인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여 제주도의 동, 서, 남, 북 네 개의 지역별로 구성하고 최소 2달에 1번 온-오프라인 정기모임을 가질 경우 모임대표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② 지역별 당원모임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주녹색당은 지역별 당원모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3조(당원소모임)
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원소모임을 만들 수 있다.
② 당원소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 승인을 받는다.
③ 제주녹색당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모임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④ 소모임이 특별한 사유 없이 4개월 이상 모임이 운영되지 않을 시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

제 14조(의제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3인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여 관심있는 의제별로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 최소 2달에 1번 정기모임을 가질 경우 모임대표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 승인을 받는다.

③ 제주녹색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 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④ 의제모임이 특별한 사유 없이 4개월 이상 모임이 운영되지 않을 시에 모임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 15조 (제주청년녹색당)

① 청년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3인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여 청년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 제주청년녹색당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제주청년녹색당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 승인을 받는다.

③ 제주녹색당은 제주청년녹색당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6조(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주녹색당은 정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둔다. 또한 사업별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① 정책위원회 : 제주녹색당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고 연구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 제주녹색당은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과정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구성과 운영 및 선거 관련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직위원회 : 제주녹색당은 당원교육의 내용을 구성 및 당원 활동을 조직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둔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17조(감사)

1. 감사는 제주 외 지역의 사람으로 한다.
2. 감사는 연 1회 이상 제주녹색당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조(사무처)

① 당원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은 사무처 내규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장은 사무처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사무처장 권한대행을 임명한다. 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장 소환

제 19조 (소환에 관한 규정)
① 제주녹색당 당직자나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소환할 수 있다.
1. 당직자 또는 운영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명백하게 당에 해를 끼친 경우
② 당직자 또는 운영위원 소환의 발의는 제주녹색당 당권자 중 1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직자나 운영위원을 소환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당직자나 운영위원에게 소환 사실을 알리고 당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소환 의결은 해당 당직자 또는 운영위원에게 효력이 없다.
⑤ 제주녹색당은 소환 발의가 적법하다고 확인되는 즉시 소환인 청구대표자 및 해당 당직자 또는 운영위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주녹색당은 소환 통지 후 20일 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⑦ 소환여부의 결정은 총회에 참여한 선거권 있는 당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⑧ 소환대상자는 운영위원회가 총회를 공고한 때부터 그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⑨ 소환이 가결되면 그다음 날부터 당직자나 운영위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재정

제 20조(수입) 제주녹색당의 재정은 당비수입과 기탁금 및 그 외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제 21조(재정지출)
① 당원이 내는 당비는 전국녹색당과 제주녹색당 간에 배분 비율은 당규에 따른다.
② 당원모임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2조(회계관리)
① 사무처장은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를 지원받은 당원모임은 운영위원회에 회계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의결정족수) 모든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재적인원은 소정의 양식을 통해 위임받을 수 있다.

제24조(세부규정)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25조(임기에 관한 규정)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사무처장,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26조(녹색당 당헌과의 관계) 제주녹색당 규약과 녹색당 당헌의 내용이 다를 경우 녹색당 당헌이 우선한다.

제 27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당법 및 정당 사무관리 규칙 등에 따른다.

<제주녹색당 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녹색당 규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책위원장의 추천과 승인) ① 정책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승인한다.
② 정책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은 제1 항의 추천 이전에 정책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

제 3 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위원은 정책위원장이 임명하되, 실제로 정책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정책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원을 임명한 정책위원장의 임기종료때까지로 한다.

제 4 조 (정책자문위원의 위촉) 정책위원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 1 조 (효력) 이 규정은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① 1차 개정 2016년 5월 22일
② 2차 개정 2017년 2월 18일
③ 3차 개정 2019년 3월 23일
④ 4차 개정 2021년 3월 6일
⑤ 5차 개정 2022년 1월 23일

참고자료 4> 2023 제주녹색당 정기총회 권리당원 명단(276명)

※ 당권자 기준일(24.02.02) 이전, 6개월 이내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명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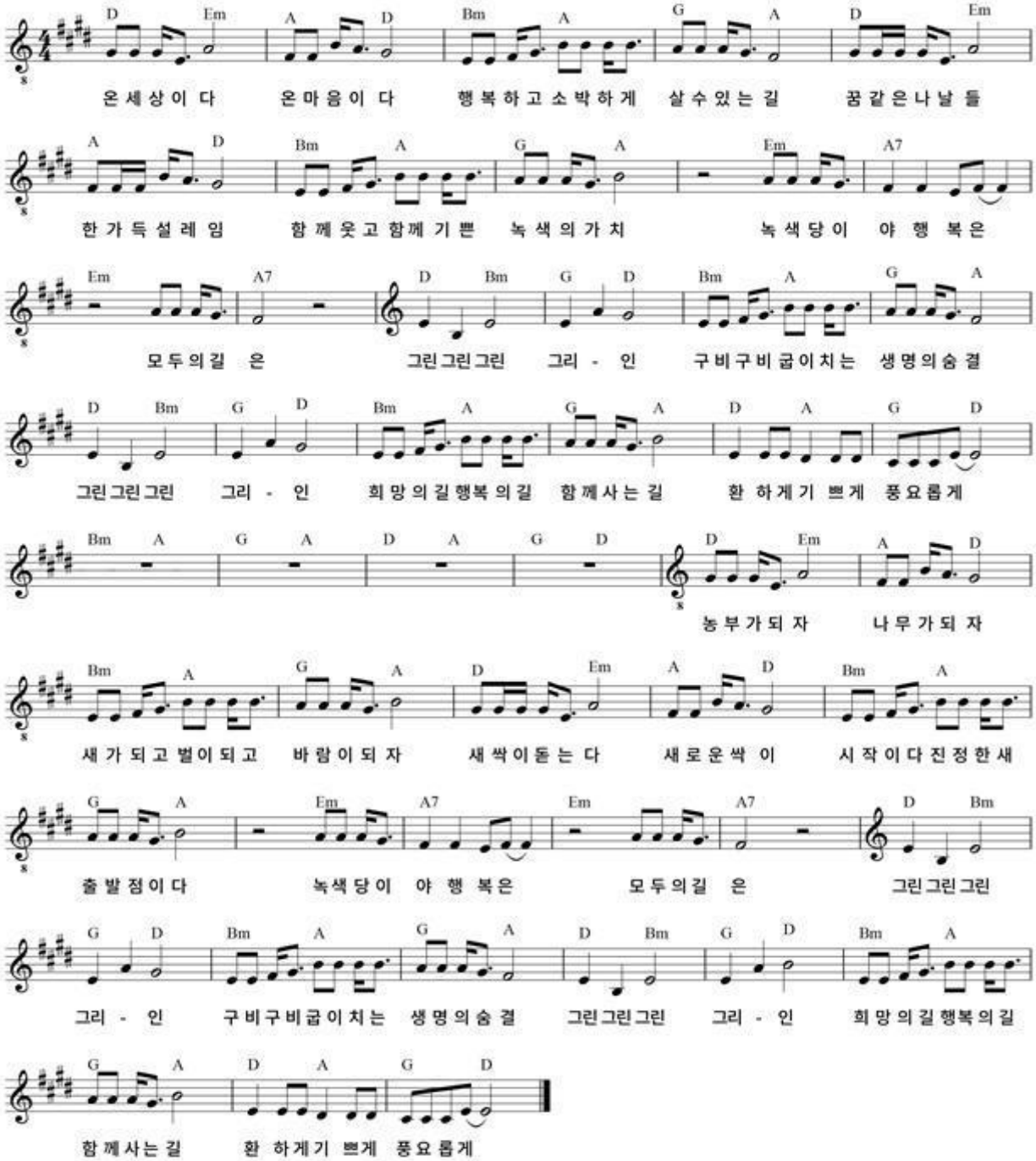
강경숙 강경연 강광보 강길표 강명숙 강문종 강민수 강민희 강영미 강영여 강정희 고나현
고대승 고미정 고봉희 고성미 고수남 고이영 고재민 고정민 고현숙 곽예린 권익현 권희섭
기명옥 김금순 김기대 김다운 김동규 김동민 김동신 김동필 김무경 김미경 김미량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미주 김민석 김민선 김민재 김민주 김배홍 김병임 김상애 김서현 김 선
김성연 김성옥 김성우 김수경 김수오 김순애 김순자 김연경 김연희 김영근 김영란 김영민
김영자 김영주 김예중 김예환 김용성 김용희 김윤희 김은아 김은주 김재경 김정도 김정민
김정순 김정심 김정인 김종옥 김종주 김주영 김주희 김준영 김지은 김지현 김지희 김진영
김창대 김철석 김태연 김태희 김현지 김현희 김혜령 김홍모 김화용 나은혜 노민규 문광조
문근식 문미경 문상빈 문수연 문예진 민경석 박문수 박미영 박사라 박상식 박선희 박성제
박소해 박소희 박유미 박은서 박은영 박인혜 박재은 박재혁 박종태 박진아 박진호 박해숙
반영경 방성향 배아람 백두산 백운경 변종석 부순정 부형율 서기성 서신심 서영석 선 경
손영익 손재민 손정현 송동효 송상열 송정학 신경준 신소연 신영훈 신은순 신현정 신현철
신효정 심은주 심희정 안명희 안석범 안수일 안은화 양길영 양상호 양순임 양예인 양우제
양은희 양인숙 양철수 양혜우 양희주 오명환 오문범 오상엽 오상운 오소영 오수경 오순옥
오안자 오영복 오유비 오주연 오태연 유가향 유만임 유혜경 윤경숙 윤영주 은종복 이강수
이건웅 이경원 이광민 이두백 이미리 이민규 이보람 이상언 이상영 이상용 이상혁 이상현
이선아 이선자 이선희 이성준 이성홍 이세은 이승민 이시윤 이신자 이외숙 이은정 이종진
이주현 이진만 이진섭 이진희 이태영 이학준 이한구 임인철 임정민 장귀금 장근영 장동훈
장서진 장한솔 전 영 전찬준 정근효 정병현 정영주 정재욱 정화빈 조남희 조현주 좌성훈
주현우 진경표 진명섭 진수은 진주화 천명광 천민수 천예지 최성희 최순자 최원석 최유라
최유리 최윤아 최윤정 최재형 최정애 최준석 최진인 최희정 추현우 한애경 한용환 한은정
한자영 한재형 한정희 한제금 한제순 한현진 허 준 현봉도 현 선 현성미 현영미 현은의
현정임 호수정주 홍승주 홍영미 홍영자 홍희숙 황용운 황은영 황정기 황정철 황지민 황현호

● **사전 위임자: 129명**
강경숙 강경연 강광보 강명숙 강영여 고나현 고대승 고수남 고정민 곽예린 김금순 김다운
김동규 김동민 김동신 김동필 김무경 김미량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민선 김민주 김배홍
김병임 김성연 김성옥 김성우 김수오 김순자 김영근 김영란 김영주 김예중 김예환 김재경
김정심 김종주 김지은 김진영 김태희 김현희 김홍모 노민규 문광조 문상빈 문예진 민경석
박문수 박미영 박상식 박소해 박소희 박재은 박종태 박진아 박진호 박해숙 반영경 방성향
배아람 백두산 백운경 부형율 서기성 서영석 선 경 손영익 손정현 송동효 신경준 신소연
신현철 신효정 심은주 안명희 안은화 양길영 양순임 양은희 양희주 오명환 오문범 오상엽
오소영 오순옥 오안자 오유비 오태연 유혜경 윤영주 은종복 이경원 이두백 이미리 이보람
이상언 이상영 이상현 이선자 이승민 이신자 이은정 이진섭 이진희 이한구 전 영 정근효
주현우 진경표 진수은 최성희 최유라 추현우 한용환 한은정 한자영 한정희 한현진 현봉도
현 선 현영미 홍수정주 홍승주 홍영미 홍희숙 황은영 황정기 황현호

● **현장 참여: 24명**
강민수 고이영 권희섭 김다운 김상애 김 선 김순애 김은주 김종옥 김주영 김창대 박은서
박인혜 부순정 신현정 양인숙 양철수 오영주 이성준 이성홍 이태영 최희정 현성미 황용
운,

● **참관**
이건웅, 김범일, 황정화

녹색당 당가

Capo on 2nd fret

작사 녹색당 **작곡** 윤영배
채보 주혜정 전성희